

시온 주보

제24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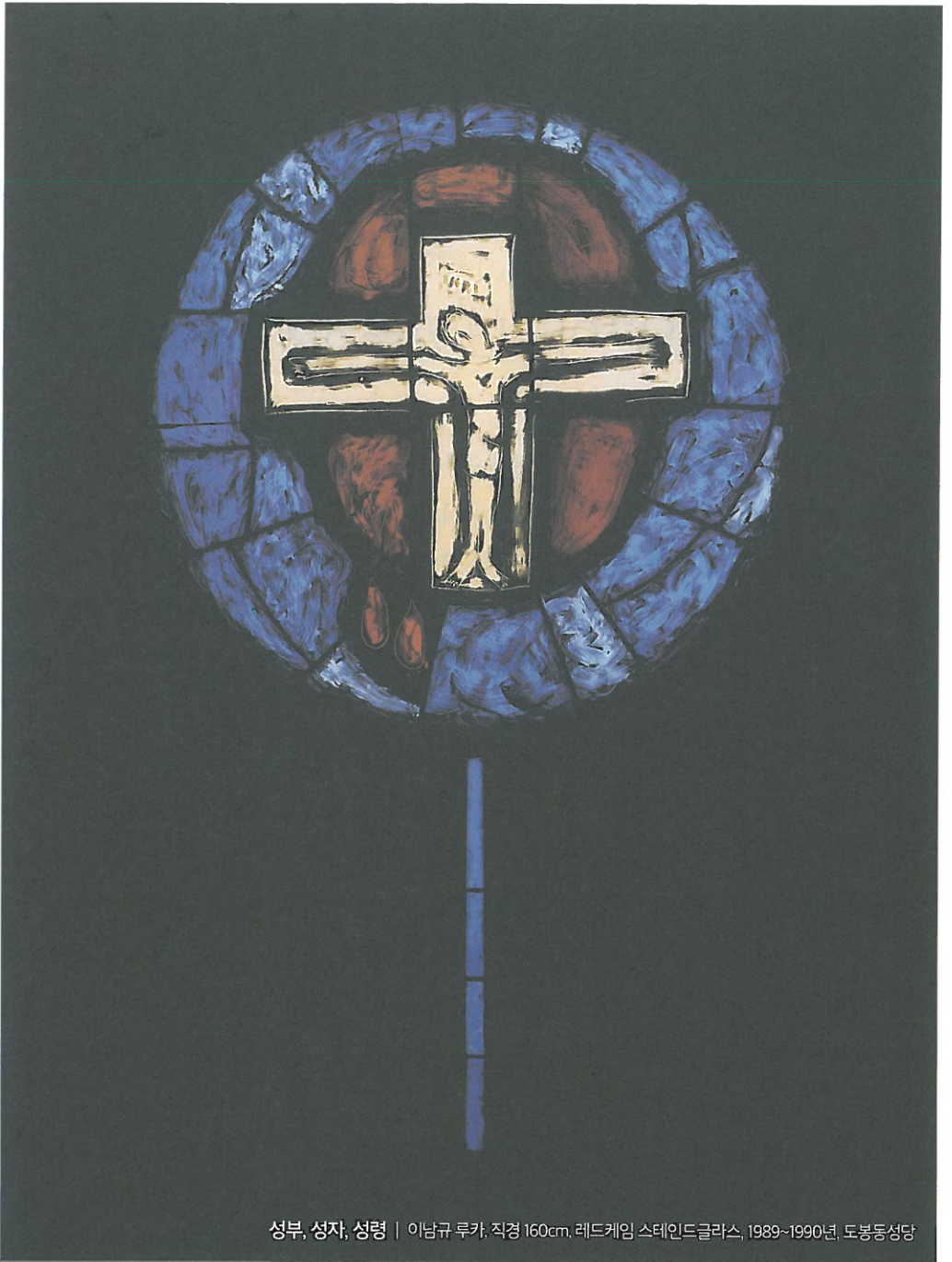
2023년 4월 16일(가해)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성부, 성자, 성령 | 이남규 루카, 직경 160cm,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1989~1990년, 도봉동성당

입당송 | 1베드 2,2 참조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42-47

화답송 | 시편 118(117),2-4.13-15ㄱㄴ.22-24(◎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
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
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지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
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 1베드 1,3-9

복음환호송 | 요한 20,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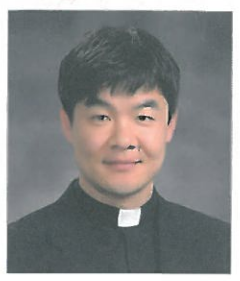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 요한 20,19-31

영성체송 | 요한 20,27 참조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
루야.



허석훈 루카 신부 | 한강성당 주임

~해 봤어요? 아니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해 봤어요? 아니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텔레비전 방송 <개그콘서트>의 ‘달인’이라는 코너에서 유명 개그맨이 사용했던 유행어입니다. 얼토당토않은 것을 우기기 위해 사용하던 유행어지만, 살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우유를 마셔보라 건네니, 시각장애인이 호기심에 묻습니다. “우유가 뭐야?” “응, 하얀 액체야.” “하얀 게 뭐야?” “응, 백조의 색깔이 하얀색이야.” “백조는 뭐야?” “응, 내 팔 모양으로 생긴 조류야.” “아! 그렇구나!” 도대체 이 시각장애인은 우유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사실 우유를 직접 마셔보면 알 수 있지만, 우유를 말로 설명하여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넉넉히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하는 신앙의 보화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담대하게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 체험을 부활 체험이라 칭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단초는, 우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마음의 평화 없이 얻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에 부활 체험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들려서는 안 되고, 빨리 형제를 용서하라는 재촉의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용서는 분명 부활 체험의 한 자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토마스 사도의 반응도 부활 체험의 실마리가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모두 문을 잠가 놓고 있을 때, 그나마 토마스 사도는 용기 있게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도보다 더 용감했던 토마스 사도만 아이러니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갈망이 속상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도 체험하는 속상함입니다. 그 속상함을 넘어 하느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토마스 사도의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은 당신을 직접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을 볼 수 있으려면, 꺼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부활 체험은 우리에게도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으로 내 온 마음을 열어 이웃을 용서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누릴 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요한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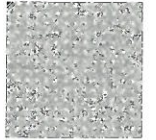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꿈꾸는 평화는 푸른 풀밭에 누어 쉬는 목가적인 풍경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과 어려움 속에서 상대방과 나를 저버리거나 이탈하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 성당 안의 <성부, 성자, 성령> 스테인드글라스는 발랄한 색채와 작가 특유의 천진한 구성으로 주님을 향한 조건 없는 믿음을 어린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말씀의
이삭



고영초 가시미로
요셉의원 병원장



요셉의원 선우경식 원장님과의 인연

2008년 4월 18일 '영등포 슈바이처' 혹은 '노숙인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선우경식 원장님께서 하느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신뢰시장 안 허름한 건물 2층에 무료 자선의원 간판을 막 내진 1987년 9월 어느 날 저녁,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비좁은 식당에서 봉사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던 선우 원장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인품에 이끌려 그해 가을부터 전진상의원 진료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격주로 수요일마다 요셉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전진상의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오랫동안 진료했지만, 행려 환자들이 풍기는 독특한 냄새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통과 보행장애를 호소한 환자에게 자세한 신경 검사 없이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처방하여 보냈습니다. 마침 그 주일 복음이 마태오복음 25장의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냄새와 오줌에 절은 바지를 벗기지 않고 대충 진료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본 그 환자의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바지는 물론 팬티까지 벗기고 자세한 신경 검사를 진행해 척수종양을 진단했습니다. 이후 요셉의원을 찾은 행려 환자들이 내게 다가오는 예수님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자, 더 이상 냄새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우 원장님은 모친과 함께 2006년 5월 첫 주일미사 참례 후 성당에서 나오시다가 급성 뇌경색으로 하마터면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뻔했습니다. 당시 요셉의원 간호사가 성모병원과 연락이 안 된다며 다급하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저는 즉시 건대병원 혈관 내수술팀을 소집하여 증상 발생 세 시간 만에 촬영을 시작해

다섯 시간 만에 문제가 된 좌측 경동맥에 스텐트를 넣고 혈전 용해제로 치료했습니다. 뇌경색에서 회복된 원장님은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받던 중 2006년 가을, 갑자기 빈혈 증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위내시경을 권한 뒤 위암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원장님은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던 중 2008년 4월 어느 날 새벽 2시에 "고 선생, 머리가 깨지는 것같이 아파!"라는 전화를 끝으로 건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사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저는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 고용복 교수님과 홍영선 교수에게 연락해 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선우 원장님의 환한 미소와 인품에 이끌려 봉사를 시작했고 그분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전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그분이 씨를 뿌리고 땀과 사랑으로 키워낸 요셉의원의 후임 원장으로 부름을 받고 보니, 이 모든 인연이 저로 하여금 단순 봉사자로는 부족하니 전적으로 봉사하라는 주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껏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성사'

"성체는 성인들의 상급이 아니라
죄인들의 빵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1년 지역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삼경기도 강론 중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12개 믿을 항목 중에서 2-7항목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니 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항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느님의 아들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화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삶의 신비, 그리고 영광 받으신 신비가 그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인간이시며 참 하느님이라고 믿는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특히 서간문에 많이 등장하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그 아들로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표현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마르 14,36 참조) 아람어인 ‘아빠’는 유아들이 사용했지만 어른도 아버지와 친숙한 관계가 있을 때 사용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드물게 하느님과 의인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하지만, 그것 또한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의 넘을 수 없는 차이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대놓고 ‘아빠’라고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호칭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라는 표현이 로마 8,15와 갈라 4,6에도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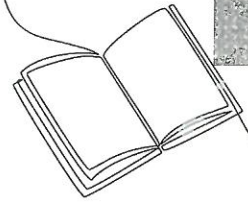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성령의 힘 덕분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마태 11,27) 여기에서 ‘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치, 감정 등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에서 서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난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요한 17,1-2)

마침내 예수님의 수난과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을 체험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 창조 이전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요한 1,1),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아지신 분(필리 2,6-7 참조)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자렛 청년 예수님을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체험한 다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처럼 비유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첫 신자 공동체의 삶 2

(사도 2,42-47)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지난주에는 첫 신자들의 삶을 가르침과 친교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빵을 떼어 나누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이 ‘빵을 떼어 나누었다.’라는 지점에서 성체 성사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전례적인 형식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코린 11,17~34을 보면 당시 주님의 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이 행하고 있는 주님의 만찬에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의 요지는 나눔의 식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주님의 만찬은 두 부분, 음식을 나누는 애찬과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으로 나누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린토 신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애찬 때 나눔을 하지 않은 채 각자 가져온 자기 음식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오로는 한데 모여서 먹기만 하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만찬에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 그분의 행적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나눔의 식사가 동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전례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전례 한가운데, 가난한 이들과 교회를 위한 나눔의 예물 봉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눔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 미사를 봉헌한다면, 참된 전례의 정신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형식은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2,46)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 공동체가 바치던 기도, 예배와 동일한 형태였을 겁니다. 이후 교회는 유대인들이 바치던 기도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767항은 “교회의 최초의 공동체들은 유대인들의 신심으로 바쳐 왔던 ‘열여덟 가지 찬미’ 대신에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세 번’ 바쳤다.”라며 초대교회의 기도의 삶이 어땠는지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은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 받을 이들을 보태어(사도 2,47)”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신자분이 방황하는 지금, 우리는 다시금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을 되새기며, 참된 신앙의 길을 찾아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다른 비신자분들에게 호감을 줄 것이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다시금 신앙의 열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생태적 회개는 모두의 회개이기에



정승아 테레지아 | 하늘땅물벗 서강벚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발표된 지 곧 8년이 됩니다. 파리 기후 협약을 앞두고 발표된 회칙을 향해 교회 안팎으로 뜨거운 반응이 뒤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활동하는 서강벚은 평신도 생태 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단위 공동체입니다. 신학 공부에 뜻을 둔 사람들이라 보니 벚을 만들고 얼마지 않아 회칙을 면밀히 읽고 정리하는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세계와 동료 피조물을 바라보는 새롭고 소중한 시각을 제안하는 이 문헌을, 선의를 지닌 사람 누구나 읽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물질부터 정치경제, 영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생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룬 이 회칙을 혼자서 소화하기는 어렵겠다는 이야기도 오셨습니다. 회칙을 온전히, 또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생태주의, 신학, 환경문제에 대한 기존 담론을 조금은 알아야 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태영성학교에 참가한 서강벚 구성원은 회칙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신자분들을 뵈었고, 그런 분들이 <찬미받으소서>를 스스로 읽고자 하는 소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2017년 여름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길라잡이>를 펴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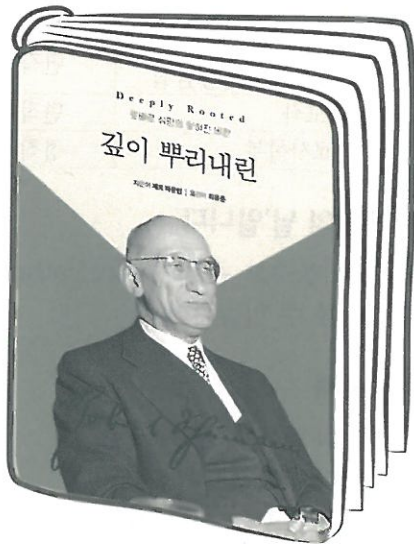
이 세계가 얼마나 아픈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감했습니다. 서강벚은 그 사이 생태 위기가 악화했음을 의식하여 길라잡이를 개정해 들어갔습니다. 길라잡이를 이용하여 소모임을 진행한 공동체의 평가를 반영하고 지금 한국에서 생태적 전환을 시도하려 할 때 마주할 실질적 문제 사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2주에 한 번 비대면 회의로 이 잡듯 공동 윤문을 이어 갔습니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작업이 길어져 2022년 <찬미받으소서> 실천 사례에 공모하고자 모임 사진(스크린샷)을 찾아보니 세계 질의 다른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 고민했지만, 나눔을 위한 질문과 묵상 안내가 독자들께 정보 확인을 넘어 영적 차원의 울림을 드릴 수 있는지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칙 자체가 훌륭하니 읽고 또 읽다 보면 서로 다른 대목에서 감동할 것이고, 이를 나누면서 다시 상호 격려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길라잡이를 만든 까닭은, 모든 것이 연결된 이 세계에서 생태적 회개란 혼자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임해야 이를 수 있고 저마다 다른 강점으로 서로에게 영감이 되는 일 아닐까 합니다. 생태 위기를 직시하는 이들의 진지함이 더해 가는 반면 정책적 노력은 느슨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주님께서 모두의 마음에 생태적 회개를 받아들일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계를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조금씩 되돌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도서 '깊이 뿌리내린'

와해와 평화를 꿈꾸며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화해해서 유럽연합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 유럽에서 얼마 지내보니 더 와닿게 된 물음이었습니다. 두 국가는 1871년 보불전쟁부터 제1차, 2차 세계대전까지 끔찍한 전쟁을 세 차례나 치른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경제공동체를 거쳐서 형성된 오늘날 유럽연합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가 바로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이 둘의 화해와 연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동료들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양한 답변을 들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역사 인식. 독일은 역사적 반성을 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적대감을 넘어 상생해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인식한 것이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나라는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적 토양.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에는 용서와 화해라는 에토스, 즉 공동체적 정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

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교에 바탕을 둔 유럽의 문화적 토양이죠.

마지막으로 정치 지도자의 역할. 프랑스의 로베르 슈망과 독일의 아데나워와 같은 이들의 활약이 중요했습니다. 1950년 5월 9일 '취망 선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 방지와 세계 평화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비전은 물론이며, 초국가적인 기구 설치, 아프리카의 발전 도모, 하나의 유럽을 만든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슈망의 보편주의적 비전은 가톨릭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그는 유럽연합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물음 이면에는 '동아시아 평화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일본의 역사 반성은 독일과 다릅니다.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뿐 아니라 미·중의 패권 경쟁은 화해와 평화 건설보다 진영 논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신뢰와 복지는 줄고 군비는 늘어나는 미래를 후손에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모두

가 원하지 않는 미래입니다. 희망 같은 정치 지도자가 어딘가에 있을까요? 국가 경쟁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라는 에토스나 사랑과 자비라는 종교적 전통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에게만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신도의 사회적 사명이 중요합니다. 희망을 소개하는 책이 『깊이 뿌리내린: 로베르 슈망의 잊혀진 비전』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도교적 전통이 망각되는 것을 우려하며 개신교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슈망이 가톨릭 신앙과 사회관을 어떻게 공적인 삶에서 실천했는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 토마스의 『동양평화론』이나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이라는 공의회 문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망은 2021년 가경자로 선포되면서 시복시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정치를 하느님 뜻에 따르는 소명과 봉사로 여기고 살아간 평신도의 모델입니다.

오늘(4월 16일)은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2023년 성소 주일 행사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1베드 2,21)를 주제로 4월 30일(주일) 오전 10시~오후 4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해화동)에서 성소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 주차 공간이 없사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동성 중고등학교 운동장 주차 불가)
대상: 모든 신자(전체 개방)

자세한 사항은 성소국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 참조

시작	· 신학교 개방	10시
성소주일 미사	· 집전: 손희송 총대리 주교 · 공동집전: 염수정 추기경 외 사제단	11시~12시 운동장 야외제대
수도회 체험	· 수도회 성소 체험 및 홍보 부스(12개)	13시~15시 운동장
	· 학사님을 이겨라 1: 더 세컨드 슬램뱅크 · 학사님을 이겨라 2: FC Jesus Again · 학사님을 이겨라 3: 피지컬 500	13시30분~15시 운동장 및 대성당
신학교 체험	· 나만의 주제성구 만들기 · 수단 한 번 입어보자	
카페	· 부제님의 Sugar, 성신당	13시30분~16시 필로티
공연	· UNTAS, ALMA, 수어반, 1학년 신학생 무대	15시~16시 운동장 야외무대
마침	· 폐회사 및 마침 강복	16시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김성훈 신부	안식년	면직
신요섭 신부	사회사목국 한미음한몸운동본부 명동밥집	면직
최지영 신부	송파동 본당 보좌	면직
김주신 신부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정직

4월 20일(목)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0년 4월 23일 백남희 베드로 신부(53세)
- 1944년 4월 20일 안학만 루카 신부(56세)
- 1986년 4월 23일 임중국 바오로 신부(80세)
- 1996년 4월 19일 신인균 요셉 신부(91세)
- 2003년 4월 18일 한희동 그레고리오 신부(68세)
- 2008년 4월 21일 류영도 디오니시오 신부(83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구청 알림

소방사목 봉사자 모집

대상: 봉사와 기도 생활에 관심 있는 분
문의: 02)727-2078, 010-6234-6910 직장사목팀

2023년 월요 성경통독(사목국)

내용: 친구약 성경 전체 / 강: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의 + 미사 / 온라인 동시 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아카데미

접수: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참조
때: 4월11일~6월8일
문의: 02)727-212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특강) 가톨릭 영성을 통한 가톨릭 믿음과 신앙활동의 다양한 문화(3주)	최대환 신부
(특강)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법'(4주)	윤계연 박사
(특강) '성가정의 가족들의 모든 대화는 기도이며 영성상담입니다'(4주)	김하늘 배우, 유지현 박사, 최현정 아나운서, 류시현 방송인
'마음을 치유하는 신앙인 글쓰기 학교'(5주)	허영엽 신부, 신달자 시인, 정호승 시인, 이지나 작가
마음수련을 위한 그림일기(4주)	김현정
미술치료(4주)	신혜영, 류지컬(8주), 이슬
바이올린(8주)	김수연, 요개(4주), 최희영
해금(8주)	정겨운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론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 전시회: 1~3전시실
전시일정: 4월19일(수)~27일(목)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 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신자 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순교자현양위원회 회복시성 기원미사
이 달의 하느님의 종 '박성운 바오로'
때: 매일 셋째주(화) 4월18일 오전 10시(185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향심기도 2박3일 심화 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12만원
때: 4월21일(금) 17시~23일(일) 16시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명상의 집(우이동)
문의: 010-4565-8898

용문청소년수련장 이용 안내

넓은 잔디 운동장, 메타세콰이아 길, 나무그늘, 산속 십자가의 길, 수영장, 대강당, 100여명 숙박 본당 피정 · 연수 · 야외미사 · 야외행사 단체 · 소모임 · 예비신자 등 피정 / 당일 · 숙박
향심기도 피정지도: 김귀용 신부 / 문의: 031)774-3587
때: 5월12일~14일, 6월16일~18일, 7월7일~9일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 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제44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일반신자, 수도자, 성직자 누구나 / 회비 없음
주제: 갈수록 중요해지는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
때: 4월26일(수) 19시~21시
곳: 가톨릭회관(명동) 1층 강당
강사: 데니스 오히라(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명예교수)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65차 미사 4월1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대신리 본당, 관후리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 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2023 DMZ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때, 곳: 8월7일~11일, 강화 · 파주 · 연천 · 철원 · 접경지역 / 홈페이지 참조: <http://caminjok.or.kr>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19세~30세 청년(내 · 외국인)
회비: 10만원 / 접수: 4월28일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2)753-0815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4지구(종로·성북) 성령기도회

미사: 강의: 정성환 신부 / 문의: 010-3321-1863
 때, 곳: 매일 셋째주(금) 4월21일 13시~16시, 길음동성당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북해도, 아키타(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4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4월26일(수) 19시30분 / 대상: 남녀 청년
 곳: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B401호 / 010-7197-1390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5월20일(토), 갑곡·연풍성지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사전접수 필수

아씨시 수녀들과 함께하는 젊은이 해외 선교체험

때: 7월18일(화)~25일(화) 7박8일 / 선착순 10명
 곳: 인도네시아 메단공동체 / 문의: 010-5715-1702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수원분원)

성체신심회에 초대합니다 / 문의: 010-5818-8431

주제: 성체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때, 곳: 매일 첫번째(토) 오전 10시, 도미니코수도회(주최, 강북구 수유동) / 담당: 홍 이사야 신부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5월5일(금)~8일(월)·5월19일(금)~22일(월)·6월23일(금)~26일(월),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성경원독	5월12일(금)~20일(토)	도미니코 피정의 집
효소단식	5월25일(목)~28일(일)	(주최, 황성)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자연순례	5월12일~14일, 6월3일~5일
성지순례(추자도)	5월6일~9일, 5월18일~21일, 5월27일~30일, 6월10일~13일, 6월17일~20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5월13일(토)~14일(일), 6월10일(토)~11일(일)
3박4일	4월27일(목)~30일(일), 5월4일(목)~7일(일)
8박9일	4월13일(목)~21일(금), 6월15일(목)~23일(금)
40일	4월11일(화)~5월20일(토), 10월4일(수)~11월12일(일)

예수성심 위로의전교회 모임 / 문의: 010-3275-8707

때, 곳: 매일 첫번째(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미사: 오전 10시30분~낮 12시 / 본회는 예수성심 신심을 전파하고 가난한 성당과 공소 및 국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영적 물적 후원회입니다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2023년 성령쇄신 전국 치유대피정

강사: 오용진 신부, 윤민재 신부, 양창우 신부
 미사 집전: 구요비주교, 전국 교구담당 및 협력사제단
 때, 곳: 4월22일(토) 9시~17시30분, 장충체육관
 준비물: 목주, 미사도구, 개인도시락(물·땀자리)
 문의: 02)777-3211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부부 나들이 피정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 계좌: 신협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입금 후 연락)
 때, 곳: 5월20일(토) 14시~21일(일) 17시, 아론의 집
 회비: 20만원(1부부) / 쉬는 신자, 비신자 참여 가능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자연순례: 4월26일~28일·4월30일~5월2일·5월4일~6일·5월13일~15일·5월22일~24일·5월29일~31일·6월4일~6일·6월10일~12일·6월18일~20일·6월23일~25일·10월1일~3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2023년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쿨로 대피정

주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메시지 468번)
 미사: 서상범 주교(군종교구장)와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 강의: 이범주 신부(서울대교구 자양2동성당), 손무진 신부(대구대교구 전국대교 신부)
 때, 곳: 5월5일(금) 9시30분~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 / 문의: 02)727-2489, 010-3136-7869 천주교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교육

수제 목주 조각·기초부터 완성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장학생 선발

선발 혜택: 남녀 각1명, 2023년 학비 50% 지원
 대상: 초6~중3(홈페이지 참조)
 그 외 9월 정규입학 및 여름캠프 모집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지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 회비: 1만원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오르프'와 함께하는 힘, 움직임 / 문의: 02)924-3048

대상: 청년, 직장인 / 카카오톡 ID: k_off
 때, 곳: 5월9일~30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성음악클래식기타 찬양주법·기타연주회

주법교육: 초보자 화요일반 14시, 금요일반 14시
 기타연주회: 4월28일(금) 19시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신규교육

때, 곳: 4월26일(수)~27일(목),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5층 대강당 / 문의: 032)340-2435
 4월20일까지 전화 접수 후 교육비 입금
 회비: 5만원 / 계좌: 우리은행 1002-959-680103 전주정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강의·미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주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의 생1
 때, 곳: 4월17일(월) 14시~16시,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문의: 02)705-4711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3년 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6월5일(월) 14시
 원서접수: 5월8일(월)~19일(금)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제1차 한국프라도사제회참제자마을 영성배움터 수강생 모집 / 문의: 02)853-1105

강사: 한국프라도사제회 양성담당 사제
 때: 6월10일~11월11일 둘째주(토) 14시~17시(6회)
 곳: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B301호 / 회비: 매회 1만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3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1차 전형 원서접수: 4월17일(월)~27일(목)-전형일 5월13일(토)·2차 전형 원서접수: 5월15일(월)~25일(목)-전형일 6월10일(토) / 문의: 02)705-8668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석·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3년 봄 특강

때: 5월3일~31일 매주(수) 13시30분~15시30분(강의), 12시10분(미사) 5회 / 미사 후 간단한 점심 제공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1층 성당
 회비: 5회 4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5월3일	폐제 음악회 '찬란한 오월의 노래'	김상균 교수
5월10일	미술사 속 성모 마리아	이창우 교수
5월17일	선입견을 깨는, 그림 감상법	윤석희 작가
5월24일	명화로 보는 성모 마리아의 마음 여정	윤인복 교수
5월31일	조토(Giotto)와 이야기 성화의 탄생	양정무 교수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월드(선종) 강의-미사
 때: 4월25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모집

시스피나 시니어여성합창단원 모집
 지휘: 이호중 교수 / 문의: 010-9842-8818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한누리아동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 문의: 02)735-3633
 분야: 초등-중고 영수 지도, 모래놀이상담(요일선택가능)
 곳: 전철 3호선 독립문역 / hanmuricenter@hanmail.net

미사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4월25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야외미사
 때, 곳: 5월19일(금), 천진암 성지(경기도 광주)
 회비: 1만원 / 문의(접수): 02)929-2977 후원회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4월17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4월24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성시간, 목주기도, 미사 / 접수 필수
 때, 곳: 4월21일(금) 10시~13시, 가톨릭회관 102호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운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4월24일(월)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가능
 때, 곳: 매일 첫째주(토) 10시30분(사도의 모후)·15시(디모테오), 성바오로수도회(논현동, 북카페 레벤)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4월23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4월20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안내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전·진·상 양성심리상담소
 분석심리학과와 산책-잃어버린, 잊혀진, 묻혀있는 나의 인격들과의 만남
 집단형태: 반구조화 대면 소집단 수업
 돕는이: 김영희(융학박사, 경기대 명예교수)
 때: 5월9일~6월12일 매주(화) 14시~16시30분(5주)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2023년 부활 평화마켓(가톨릭 프리마켓)
 핸드메이드 성물 등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에 초대합니다. 평화마켓에서 부활의 기쁨과 일상의 평화를 만나보세요. 판매 금액의 10%는 어려운 청소년 가정에 기부됩니다
 때, 곳: 4월22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전철 2호선 홍대입구) 1층 카페
 문의: 02)338-7832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사)내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교육: 아트살롱 '함께 그려요' 드로잉 모임(성인반): 수시 모집 / '토닥토닥잘될거야 심리여행': 5월3일~31일 (수) 10시~12시(5회기)

직원모집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분야: 고객지원팀, 활동운영팀
 업무: 사무행정, 청소년활동 지도 /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위례성모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404-1700
 분야: 관리인(계약직) 1명 / 대상: 세례받은 분
 업무: 시설물 관리 / 이메일(kis9387@hanmail.net)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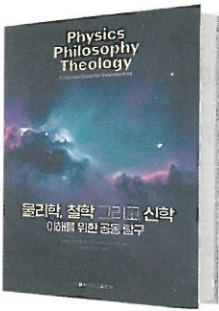
입구정1동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계약직) 1명 / 이메일 문의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PC(한글·엑셀) 사용 능숙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4월21일까지 이메일(ceelvipriti@daum.net) 접수

영일동성당 관리인 모집
 분야: 관리인 1명(계약직) / 이메일 문의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물 관리, 미화, 기타 방호 업무 가능하신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4월23일까지 방문·우편(우 0523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및 이메일(belle14@seoul.catholic.kr) 접수

여의도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782-1259
 분야: 사무원 1명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엑셀)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4월20일까지 방문·우편(우 0734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57 여의도동성당) 및 이메일(peterpark2017@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메리놀 수녀회	4월29일(토)·수시	수녀원(가양동)	010-9585-1912 성미영 수녀
살레시오회	매일 네번째(토) 14시	관구관(신길동)	010-6221-3520 유명일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4월23일(일) 9시	분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5월7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물리학, 철학,
그리고 신학
이해를 위한 공동 탐구

로버트 존 라셀, 윌리엄 스테거, 조지 코인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696쪽 | 3만5천원
문의: 02)740-9718

'종교와 과학'이라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데다, 엉뚱한 사변 철학과 해괴한 이상 심리학으로 짜집기한 출판물과 영상물이 넘쳐나고 있다. '종교와 과학'이라는 주제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에 이 책은 중요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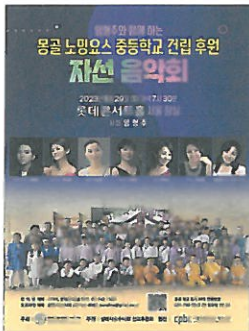


신간

길이 된 세 청년

김문태 지음
바오로딸 | 300쪽 | 1만4천원
문의: 02)944-0944

한국 최초의 신학생인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초기 한국 천주교회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부르심에 응답하고 신학 공부를 하러 떠나는 세 청년의 험난한 마카오 유학길과 신학생으로서의 다짐과 우정, 믿음의 길을 담고 있다. 『세 신학생 이야기』(2012)의 개정판이다.



음악회

몽골 노명요스 중등학교 건립 후원
자선 음악회

입장권: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 문의: 02)742-1500 네이버, 롯데콘서트홀, 02)841-8957 살레시오 수녀회
단체 20명 이상 20%, 초·중·고 학생 20% 할인

교육전문 수도회인 '살레시오수녀회'에서는 5월 29일(월), 롯데콘서트홀에서 '임형주와 함께 하는 몽골 노명요스 중등학교 건립 후원 자선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선 음악회에서는 팝페라 테너 임형주, 소프라노 박성희, 플룻 이소영, 오보에 이명진, 하프 박라나, 피아노 오순영, 그리고 이은경과 K오들친구들이 연주한다.



공모전

2023년
모여라 가톨릭
상반기 영상 공모전

때: 4월 3일~5월 31일
문의: 031)8019-5403(<https://mocatholic.or.kr>)

'똑똑똑! 여기가 성지인가요?' 2023년 모여라 가톨릭 상반기 영상 공모전이 4월 3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진행된다. 성지에서 찾은 나만의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모여라 가톨릭'에 공유하면 된다. 본당·단체·수도회 및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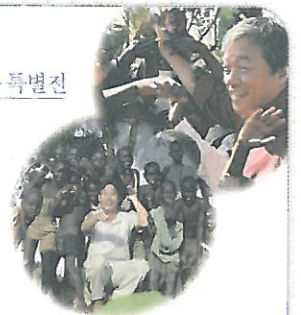


국내·외 작가 75명과 함께하는 고(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 & 이태석 신부 특별전

바로 우리展

때, 곳: 4월 22일(토)~5월 8일(월) 10시~19시(18시 입장 마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층
문의: 1544-1555 인터파크티켓, 02)595-9093 (사)이태석재단
4월 20일(목)까지 '인터파크'에서 얼리버드 티켓 할인(성인 1만원, 청소년 8천원)
단체(20명 이상) 할인(성인 1만원, 청소년 6천원) | 단체 관람 시 사전 예약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다 일찍 세상을 떠난 고(故)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이태석 신부, 두 분의 삶을 집중 조명한다. 전혀 다른 공간, 시간을 살았지만 두 분에게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 진정한 의사, 한센병, 헌신과 봉사, 행동, 부활 등 다섯 가지 키워드로 두 분의 감동적인 인생 행로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두 분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는데 동참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선한' 메시지를 함께 공유한다. 전시회 수익금은 세계보건기구(WHO) 백신 기금,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보건소·학교 설립, 페루 레이코(이종욱 사무총장 부인) 공방 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제2276(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락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 4월 18일(화) 10시 미사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2월 ~ 4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김한라	안나	1-1	임동열	분도	5-1
송은혜	세실리아	6-5	황현호	사도요한	8-2
김슬기	아네스	9-4	이민우	리노	11-3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4월 23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레지오 전단원 교육

일시 : 4월 23일(주일) 13시 / 대성전

◎ 남성 울뜨레아

일시 : 4월 16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 울뜨레아

일시 : 4월 25일(화) 10시 미사 후 304호

◎ 병자영성체

일시 : 4월 28일(금) 10시 미사 후

◎ 부활달걀과 밀랍초 판매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문화학교 선생님 모집

과목 : 미술, 공예(비즈, 클레이)

문의 : 플로라 (010-5471-2416)

◎ 초등부 주일학교 보조 반주자 모집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의 반주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습및미사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청년 전례단

20 예그리나 / 30 프리모 신입단원 모집

문의 : 전례단장 (010-9526-3217)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4. 9)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67	713 (34.5%)	669 (32.4%)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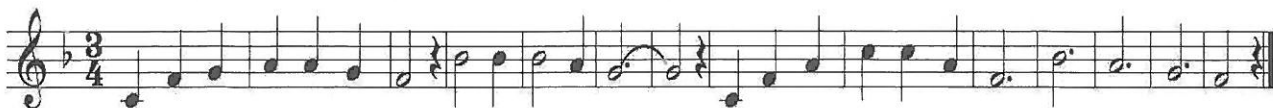
◎ 감사헌금 (4월 3일~9일)

익 명	오만원	서황숙	일십만원
권기복	일십만원	익 명	오만원
우성택	오십만원	고영은	일십만원
홍동수	일십만원	윤영자	일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함영엽,이효순	삼십만원
김승주	오만원	박명숙	오만원
이지만	일십만원	양경남	일십만원
이지원	오만원	익 명	이십만원
김선영	오십만원	신호정	오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주님 부활 대축일)

교 무 금	9,755,000원
성목요일헌금(불우한이웃을위한 헌금)	2,124,000원
성금요일헌금(예루살렘성지 특별헌금)	1,728,000원
파스카성야헌금	3,719,000원
주일헌금	6,596,700원

입당	136	봉헌	46,210,215	성체	182,164,498	파견	128
----	-----	----	------------	----	-------------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